



“고통 받았던 피해자들에게 죄송”

경찰청 제주해군기지 인권침해 공식 사과 민감률 청장 “피해 회복과 화해 노력 계속”

민감률 경찰청장이 제주강정 해군기지를 비롯해 과거 공권력에 의해 발생했던 인권침해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경찰청은 지난 26일 본청 13층 대청마루에서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보고회’를 개최했다. 2017년 8월 25일 발족한 진상조사위원회는 이날 보고회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경찰청은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이날 보고회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민감률 경찰청장이 2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대청마루에서 열린 진상조사위 권고 이행 계획 보고회에 참석해 경찰 인권침해 사건 관련 사과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청은 35개의 권고 가운데 27개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8개 사항도 올해내로 개선을 마칠 계획이다.

경찰청은 35개의 권고 가운데 27개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8개 사항도 올해내로 개선을 마칠 계획이다.

제주강정 해군기지의 경우에는 △ 불법행위 등에만 재증이 이뤄지도록 ‘채증 활동규칙’ 개정 △ 공공정책 추진 과정에서 경찰력 투입 요건과 절차 마련 △ 집회시위 해산시 위법요

소 고려한 안전대책 마련 △ 국민의 일반적 통행권 원천 차단 관행 개선 등 4가지가 요구됐는데, 이중 경찰은 ‘채증 활동규칙’ 개정을 뺀 3가지 권고에 대한 이행을 완료했다.

이날 민감률 청장은 “경찰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남용해서는 안되며, 절제된 가운데 행사돼야 한다”며 “그러나 진상조사 결과 그렇지 못한 부분이 확인됐고, 원칙과 기준이 흔들리기도 했으며, 인권에 대한 이해와 존중도 부족했었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이로 인해 국민이 생명을 잃거나 다치는 등 고통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도 희생되는 등 아픔이 있었다”며 “고통을 받았던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순직한 경찰과 유가족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법과 절차에 따라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피해 회복과 화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특히 진상조사위의 권고를 존중해 앞으로는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경찰 운영의 제도와 시스템을 인권친화적으로 적극 개선하겠다”고 다짐했다. 송은범기자



북적거리는 해수욕장 27일 제주도 한림읍 금릉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이 물놀이를 즐기며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있다. 강희만기자

조건만남 미끼 강도상해 일당 실형

성매수 30대는 집유 1년 재판부 “때리고 돈 빼앗아”

조건만남을 미끼로 성매수를 원하는 남성을 유인해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10대 포항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병기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20)씨에게 징역 5년을, 김모(17)군에게는 징역 5년, 단기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6

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이모(22)씨와 양모(20)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 6월, 김모(18)군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단기 2년을 선고했다.

오씨 등은 지난 1월 4일 오전 5시 30분쯤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조건만남 성매매를 원하는 20대 남성을 제주 시내 모텔로 유인한 뒤 폭행하고 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했다. 다음날 오전 4시에도 같은 수법으로 30대 남성을 유인, 폭행해 녹골을 골절시키는 등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히고, 14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했다. 이 밖에도 오씨를 제외한 김군 등 3명은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4시쯤 또 다른 30대 남성을 제주 시내 모텔로 유인한 뒤 복귀를 휘둘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고 죄질도 매우 나빠 범행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에게는 실형 선고를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을 통해 실제 성관계를 가진 최모(39)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송은범기자

무더위 속 ‘영유아 차량 간힘 사고’ 속출

119 “대부분 어른 부주의 하차시 각별한 주의 필요”

제주에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가운데 영유아 차량 간힘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제주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1시쯤 제주시 삼도동에 주차된 차량에서 두살배기 여자아이가 갇힌 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1시간 후인 오후 2시쯤에는 제주시 노형동에서도 세살배기 남자아이가 무더위 속 차량에 갇혔다.



지난 24일 차량 안에 갇힌 세살배기 남자아이를 구조하는 모습. 사진=제주소방서 제공

두 아이는 모두 20분 이상 차 안에 갇혀 있었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구조돼 건강에는 지장이 없는 상황이다.

여름철 외부 온도가 30도를 넘으면 자동차 내부 온도는 최대 90도에 이르며, 어린이의 경우는 체온 상승 속도가 성인보다 3~5배 빨라 잠깐이

라도 차 안에 갇혀도 위험한 상황에 처할 우려가 있다.

제주소방서 관계자는 “차량 간힘 사고는 대부분 어른들의 부주의로 발생하기 때문에 하차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특히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아이에게 운전석에서 경적을 울려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 등을 사전에 교육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해수욕장서 물놀이 사고 이어져

제주해경 “지난 25일부터 위험예보 ‘관심’ 단계 발령”

지난 25일 오후 6시35분쯤 제주시 구좌읍 세화해수욕장 약 300m 해상에서 조모(49·서울)씨가 표류중인 것을 해경이 발견해 구조했다.

이날 조씨는 아들이 가지고 놀던 튜브가 바람에 떠밀려 나가자 이를 잡기 위해 해수욕장 외곽으로 나갔

다 표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4일 낮 12시12분쯤에도 같은 세화해수욕장에서 7살 남자아이가 튜브를 탄 채로 외해로 떠밀려가는 것을 해경이 발견, 구조했다.

해경 관계자는 “물놀이 시에는 구명조끼를 착용해 안전하게 즐기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25일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송은범기자

20대 여성 갯바위서 숨진채 발견

해경 “부검 통해 사인 조사”

지난 27일 오전 6시20분쯤 서귀포시 예래동 예래포장 인근 갯바위에서 이모(22·여)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씨

는 인근을 지나던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발견당시 이씨는 노란색 티셔츠와 검은색 치마, 흰색 신발을 착용하고 있었다고 해경은 밝혔다.

해경은 부검을 통해 이씨의 사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태훈기자

폭우에 하마터면...

둘레길 탐방중 고립 학생·교사 28명 구조

한라산 둘레길 계곡을 탐방하던 교사와 학생 28명이 폭우로 불어난 물에 고립됐다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전원 무사히 구조됐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3시50분쯤 서귀포시 상효동 한라산 둘레길에서 탐방에 나선 인솔교사와 학생 등 28명이 불어난 물에 고립됐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고립된 탐방객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이날 오후 6시15분쯤 전원 구조됐으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태훈기자 ty9456@ihalla.com

제3회 제주 한방 문화 축제

일시 19. 8. 3 (개막식 10시, 부대행사 12시부터 재료 소진시 까지)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주최(관) (사)제주한의학연구원
후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농업기술원, 농산물원종장, 제주시학용협회,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제주특별자치도 한의학회, 남원읍 신촌1리 마을회, 일도2동 연합정년회

한의학 특강

- **일시** : 2019. 8. 3일(토), 9월 중, 10월 중 AM 10:00~11:00 (회당 1시간 한달에 한번 3번 강좌)
- **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시청각실
- **주요내용** : 동의보감 속 건강 강좌

부대행사

- **한방 건강 환 만들기** : 제주 감귤을 활용하여 건강환을 온 가족이 함께 만드는 체험
- **우리 가족을 위한 동의보감 만들기** : 동의보감 내용을 토대로 우리 가족을 위한 건강서를 직접 만들어 보는 체험
- **약초(식방풍) 미니화분 만들기** (농업기술원 농산물원종장)
 - 재배 관리가 손쉬운 약초를 직접 미니 화분에 심어 실생활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약초에 대한 지식을 함양
- **충명향주머니 만들기** : 충명탕에 들어가는 한약재를 이용한 향주머니 만들기 체험
- **진피 음식/음료 시식/시음**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 **한방 건강상담**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 **진피 제품 전시** (남원읍 신촌1리 마을회)

2019년 UNESCO 세계 기록 유산 등재 10주년 기념 「동의보감전시회」 및 제3회 제주 한방 문화 축제

행사기간 19. 8. 3 ~ 11. 7 (개막식 8. 3. 10시) | **행사장소**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2019년 UNESCO 세계 기록 유산 등재 10주년 기념 「동의보감 전시회」
허준 선생과 함께하는 동의보감 in 제주

- **장소** :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 갤러리 홀
- **주최** : 한국한의학연구원
- **주관** : (재)제주한의학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 **전시자료** : - 동의보감 영인본 - 제주한의학연구원 소장자료 - 제주 진한의원 유물
- **주요내용** : - 동의보감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와 유물 전시 - 동의보감 속 제주도 한약재 전시 및 제주 진한의원 유물 전시

제주한의학연구원
JULI INSTITUTE OF KOREAN MEDICINE

행사참가자에 한해서 박물관 무료입장 및 무료주차 가능하오니 박물관 매표소에서 무료티켓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64)702-1224

제주도 “토종” 태양광 기업

태양광

"누가" 시공 하세요?

발전사업

- 초기자본 **0**
- 토지소유자 무자본 발전소 운영!
- 유지/보수/관리 전문
- 친환경 스크류 공법

가정용 태양광

- 제주에너지공사 선정 기업
- 가정용 태양광 전문 설치 기업
- 고장난 태양광 수리(A/S)

200여개 사업 실적 보유
제주 최대 태양광 발전사업기업

(주)나눔에너지
064-745-0420 / 010-6765-8853
www.nanoenergy.com

유학사상의 현실과 발전방안 심포지엄 개최 안내

○ 인간사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인의예지와 효제충신의 윤리도덕은 날로 퇴색되어가고 있습니다
○ 세계화시대, 외래 문물이 무분별한 도입은 이기주의와 불평·비리를 넘어 패권사회의 현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 부도덕한 사회병폐를 극복하여 제주시 고유의 미풍양속을 되찾기 위한 일환으로 다음과 같이 심포지엄을 개최하오니 도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일시 2019년 7월 31일(수) 10:00~12:00

장소 제주유림문화회 3층 강당

주최/주관 21C제주유교문화발전연구원

후원 제주특별자치도 / 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 향교재단

참석 기관장, 유림지도자, 일반시민 등 -100명 내외

행사진행 및 주제발표 참여 인사

- **좌장** : 문태수원외 성균관부관장
- **제1주제** : 도덕성 측면에서 보는 행복추구권(1)
 - 발표자 : 김두홍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제주지회 동부노인대학장)
 - 토론자 : 김익선 (제주향교 사무국장)
 - 토론자 : 문익준 (본 연구원 총괄기획제도분과위원장)
- **제2주제** : 현대교육이 서원교육에서 배워야 할 논제
 - 발표자 : 문영택 (사단법인 질트레비 이사장)
 - 토론자 : 강창훈 (본 연구원 총괄기획제도분과위원회 전문위원)
 - 토론자 : 허익선 (제주향교 교회사적 장의)

주1) 발표문과 토론자 기고문은 당일 현지에서 배부 합니다
주2) 유교 관련 단체 및 임직원에게 대한 개별공문서 발송은 생략 합니다
주3) 행사주관 사무처장 연락처 : 박용모 010-4947-6315

21C제주유교문화발전연구원 원장 문영호